

주한 미국대사관의 농업무역관(ATO)이 한국에 개설된 것은 지난 80년. 15년 동안 미농업무역관(이하 ATO)은 양국간의 농산물 교역활성화를 목표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전달과 교역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9월에는 ATO에 주요 자리이동이 있었다. 필립A. 설 씨가 새롭게 무역관장의 '바톤'을 이어 받은 것. 미대사관의 또 다른 농업담당 기관인 농무과 신입참사관과 함께 한국에 부임한 설씨는 '업무파악과 함께 한국의 시장 상황을 알고자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를 본지에 '초대'해 '미국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 및 '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먼저 한국 부임을 축하한다. 한국에 부임하게된 소감은?

한국은 미국의 해외 시장에서 매우 규모가 큰 시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주한 ATO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한국에서 일을 하게 돼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ATO는 전세계에 걸쳐 몇 군데 설치돼 있으며 그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외 현지 농업 정책은 두 개의 부서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농무과는 정부간 정책 및 주요 현안의 협의와 조율을 담당하고 ATO는 민간부문간의 농업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보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전세계에 걸쳐 50개국에 농무과와 농업무역관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에 따라 농업무역관이 설치되지 않고 농무과에서 겸임하는 곳도 있다.

ATO는 양국간의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즉 농업정책, 작황, 무역장벽 등을 파악하고 문제에 따르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양국 업자들의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한국의 농산물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 통로와 절차에 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ATO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간에 원활한 교역관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는 곳이다.

미국밀의 안전성문제가 가끔 논쟁거리가 된다. 미국밀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 업계로는 민감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밀이 수확되어 국내의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미국식품안전관리시스템(USFSS)이 가동돼 검색활동을 벌인다. 이 외에도 식품의약품(FDA), 환경보호국(EPA)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감사가 그물망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출밀에 대해선 미연방국물검사소(FGIS)가 선적 전에 검역을 하는데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선적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수입업자가 중점 검역 항목을 제시하면 FGIS는 이에 대해 세밀한 검역을 실시한다.

ATO가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아직도 의혹을 벗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세미나 및 광고 등을 통해 미국식품 안전장치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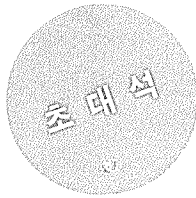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올 상반기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전년동기대비 82.5%로 상승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되리라 본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니 만큼 ATO도 매우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빵, 제분 전문컨설턴트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의 전문기술인들의 미국 연수도 시행할 것이다. 또한 체리, 블루베리, 너트 등 미국 부재료업계와 협조하여 한국업계가 제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95 Siba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을 두었나?

주한 ATO가 설립된 지 15년이 됐어도 아직껏 한국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ATO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 ATO에 대한 한국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



**“양국간 활발한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신임 미국농업무역관장**

